



안녕하세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제주도 관광단지 안에 위치한 중문 본당에서 파견의 삶을 살고 있는 김가형 수녀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도성소를 갈망했던 대모님을 따라 레지오를 하면서 매주 함께 독거어르신을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 안마도 해 드리고 간식도 챙겨 드리면서 어느 날 이렇게 함께 봉사하면서 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수도생활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성소피정을 몇 차례 참석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깊은 의미도 모르면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끈다고 하신 당신을 믿고 당신께 충실하겠습니다."라는 마더 씨튼의 말씀과 "하느님의 편한 도구가 되고 싶다."는 바램만을 가지고

용감하게 1992년에 입회했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본당, 본원주방, 이주여성쉼터 등 여러 사도직과 공동체를 통해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를 체험했고 지금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 중 본당 사도직은 은총의 종합선물 세트입니다. 본당 안에서는 신생아부터 101세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모든 분들을 만날 수 있고, 본당 내 여러 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봉사 활동은 올해 본당 내 사회복지분과에서 주관한 '반찬 만들어 어려운 가정에 배달하기'였습니다. 상반기에는 김장김치, 김, 본당 사회복지 기금. 하반기에는 열무김치, 장조림, 마늘고추장, 멸치, 본당 사회복지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삼일, 하반기에는 이틀 동안 신부님, 수도자들 사목위원들과 희망자 몇 분이 음식을 만들고 마지막 날은 3팀으로 나누어 배달했습니다. 총 30가정을 선정했는데 10가정은 중문 본당 신자, 20가정은 지역 내 지체장애우 가정으로 장애인 사회복지센터에 의뢰해서 추천 받은 가정이었습니다. 주어진 열악한 환경과 불편한 몸으로 지내는 장애우 가정에 처음 들어서면 미리 연락을 드렸어도 서로가 초면이고 특히 수도자를 가까이에서 처음 보는 분들도 있었기에 어색해하셨지만 잠깐 대화를 나누고 혹시 기도해도 괜찮은지 물어본 후 기도해 드리면 편안해 하였고,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라고 인사하고 나오면 고맙다는 인사를 거듭했습니다. 마음 뿌듯하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봉사할 기회를 주셨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시는 모습 안에서 삶을 재촉 받았으니 오히려 고마워할 사람은 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느님께서 감사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봉사가 특히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교회 밖으로 나가 구체적인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필요,



특히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 안에서

우리의 전 생애를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서원한 저에게는 감사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모님의 전구에 의탁하며 사랑의 수도자로 충실히 기쁘게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Greetings from Korea! My name is Kim, Ka Hyong. I am ministering at Joong-Mun Parish on Jeju Island. Jeju Island is the largest island off the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s famous for beautiful tourist sites. I was baptized after graduating high school. I was influenced by my godmother who was discerning religious life. With her, I visited senior citizens who live alone and joined the legion of Mary. While doing service, I began to think of religious life, and participated in vocation retreats several times. Inspired by the words of Mother Seton; "I will be faithful to you, God, trusting God will lead everything to goodness," and wishing that I could become an instrument of God, I entered the Community in 1992.

With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working at several parishes, provincial house (kitchen director), and the shelter for immigrant women, I experienced the fact that God is love in my ministries and community life. For me, parish ministry is very special and grace-filled gift from God. The reason is that there are various people from newborn babies to one hundred one year old seniors, women and men, and lots of group activities.



Among the many things that resonate with me is that the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the parish delivered and distributed food to poor people. The parishioners made Kimchi and other side dishes so that the poor families can be provided for. Also, some funds for social welfare were donated. The pastor, myself and the Sister I live with now, the parish council members, and some volunteers joined in the effort for two or three days. On the last day, we delivered the food we made to thirty families (10 families – belong to our parish, 20 families – with disabled recommended by the social welfare center nearby). In the beginning when we visited the families with disabled, they were not comfortable with us, especially meeting religious for the first time, as time passed they were comforted by our prayers and talks with them. They were very grateful to us. However, I found that whenever I visit them, it was I who received the grace through this service. And I realized that it is God who deserves to receive the thank you from them, we are just instruments of God.

The reason I was struck by this experience especially is that our action was to show the mercy of God, which gives rain and sun to all peoples. We shared our love with the people not just those in the church but those outside the church too. For me,



who made profession to offer my whole life to God for the needs of the world and the poor, I was very grateful. I hope that I, as a religious of love, can live joyfully trusting on the help of the Holy Spirit and the intercession of Mary.

